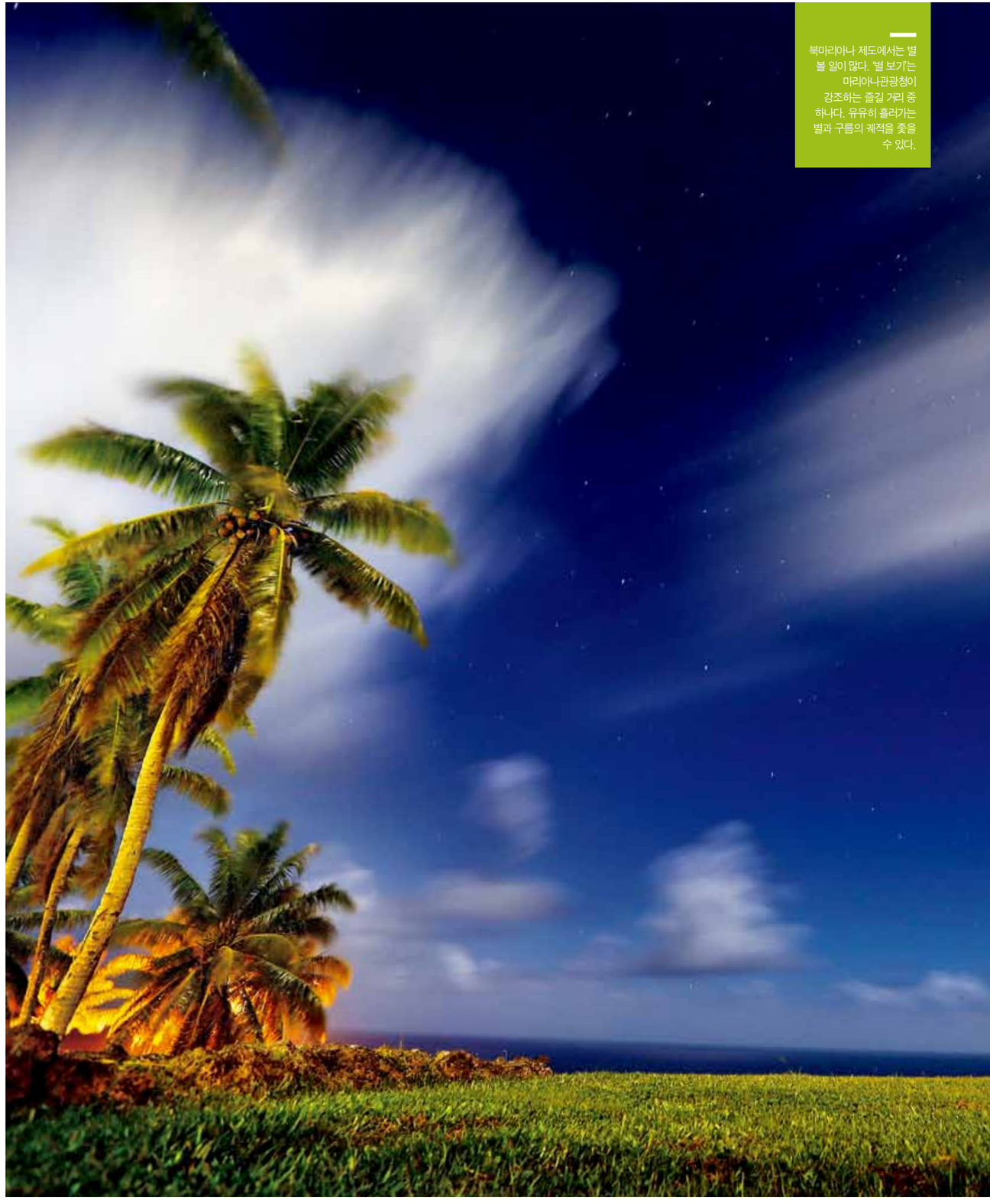
# Rota & Saipan
# Wonderful Islands in Pacific Ocean

## 강렬하고 투명한 빛으로 물든 열대의 섬

망망한 태평양에 떠 있는 수많은 섬은 모두 낙도다.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존재들이다. 사이판(Saipan), 티니안(Tinian), 로타(Rota) 등 15개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Northern Mariana) 제도도 마찬가지다. 세계 지도를 A4 용지에 인쇄하면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여행자에게 오히려 매력이자 축복이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 억겁의 세월을 거치며 유지된 고유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상의 공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고립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짙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왔음을 깨닫게 된다.

**글·사진** 박상현 기자, **협찬** 마리아나관광청

사이판과 로타에서 시계(視界)는 무한히 확장된다. 침침했던 시야가 점차 또렷해진다. 섬을 일주하다 해변에 들르면 광막한 바다 너머로 그어진 수평선이 분명하게 보인다. 배를 타고 나가 해저를 들여다보면 수심이 10m에 이르는 물에서도 산호초와 물고기가 눈에 들어온다. 밤에는 명징한 창공을 수놓는 별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땅으로 쏟아져 내릴 듯, 별빛이 총총하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별 볼 일이 많다. '별 보기'는 마리아나관광청이 강조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다. 유유히 흘러가는 별과 구름의 궤적을 좇을 수 있다.

# 로타
##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낙원

사이판에서 남쪽으로 135㎞ 거리에 위치한 로타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주요 섬 가운데 길손의 발길이 가장 뜸하다. 한국에서 가자면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하고, 알려진 정보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외부와 단절된 땅에서 진정한 휴식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로타를 찾는 한국인의 정확한 수는 아무도 모른다. 공식적인 통계가 있지만, 수치가 워낙 적어서 의심스럽다. 사실 로타의 인구도 명확하지는 않다. 로타에 있는 편의점에서 만난 경찰은 4천 명이라고 했고, 리조트 직원은 2천500명이라고 주장했다. 로타가 고향인 그 직원은 "한때 4천 명이 살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여러 자료를 뒤져보면 3천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마리아나관광청에 따르면 사이판을 통하지 않고 로타로 바로 들어가는 여행자는 월평균 약 130명으로 연간 1천500명 수준이다. 그중 일본인이 절반을 넘고, 괌 출신이 20~30%를 차지한다. 지난 11월에 북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1만6천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41%를 차지했지만, 로타 내 여행자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로타는 인식 저편에 있는 미지의 섬인 셈이다.

하지만 사이판과 로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두 섬을 다니는 항공기는 도시의 버스 같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이다. 수속 절차는 간단하다. 공항 카운터에서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짐을 부치면 그만이다. 시골의 터미널 같은 대합실을 통과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경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모든 과정은 마무리된다.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면 10분 남짓 걸린다. 항공권 대신 좌석 번호가 커다랗게 쓰인 코팅된 종이를 나눠주고, 여권 검사도 하지 않는다.

송송 빌리지(Song Song Village)는 로타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웨딩케이크(Wedding Cake) 산을 향해 뻗은 대로 주변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산 프란시스코 데 보르하(San Francisco de Borja) 성당(오른쪽 두 번째 사진)이다. 종루에 종 대신 대포의 화약통이 걸려 있다. 전쟁의 유산을 문화재로 재활용한 사례다.

Rota

# Beautiful Beach and Clear Sea Water

**로타 블루, 한없이 푸른 바다에 미혹되다**

사이판은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다.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사이판을 검색해 보면 여행자들이 추천하는 체험 활동의 1~3위가 스쿠버다이빙이다. 또 다른 여행 정보 사이트인 위키트래블(Wikitravel)에는 "사이판의 바닷속에서는 육안으로 16~30m를 볼 수 있고, 파고도 적당한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수중에서 잘 보존된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열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배를 만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있다.

로타의 바다는 사이판보다 더 아름답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색을 표현할 때 '로타 블루'(Rota Blue)라는 용어를 쓴다. 단순히 '파랗다'는 말로는 독특한 빛깔을 형언할 수 없다는 자부심의 발로다. 모래 해변과 가까운 바다는 영롱한 하늘빛, 육지에서 먼 바다는 진한 남색을 띤다. 매혹적인 바닷물로 이름난 타히티나 몰디브에 버금가는 색상이다. 송송 빌리지에서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는 일본인도 로타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바닷물의 투명도"라고 했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푸른 바닷물은 로타 북쪽에 있는 테테토(Teteto) 해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송송 빌리지와 가까운 테테토 해변은 접근성이 좋아 현지인과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워낙 조용한 섬이라 평일 한낮에는 해수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운이 좋다면 드넓은 해변을 독점하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수영을 하다 피곤해지면 야자수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잠을 청하면 된다.

로타에는 테테토 해변 외에도 곳곳에 모래 해변이 있다. 개중에는 이름이 없는 해변도 많다. 섬을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추면 된다. 수심이 얕고 물이 따뜻해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다. 로타에서 해변으로 갈 때는 물안경과 대롱을 챙겨야 한다. 멀리까지 헤엄치지 않아도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깊은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도전할 수도 있다. 어디에서든 해수면 아래로 벌어지는 비경에 감탄사가 나온다.

# Rota

로타는 사이판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일본군이 주둔했다. 섬에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대포와 사탕수수를 나르기 위해 일본인이 설치한 선로가 남아 있다(왼쪽 페이지). 테테토 해변과 송송 빌리지 사이에는 과거 주민들의 생활용품이 전시돼 있는 동굴 박물관이 있다(위 사진들). 미국의 주별 자동차 표지판도 진열돼 있다.

## 놀고 먹고 자는 무위도식의 행복을 누리다

송송 빌리지는 로타의 거점이다. 섬 안에서 휴대전화 전파가 잘 터지는 곳은 공항을 제외하면 송송 빌리지뿐이다. 이곳에는 레스토랑, 카페, 은행, 상점 등 편의 시설이 모두 모여 있다. 중심지라고 하지만 둘러보는 데는 10분 남짓이면 족하다. 식당은 일식을 전문으로 하는 '도쿄엔', 피자와 파스타 등을 파는 '피자리아' 등 서너 곳이 전부다. 음료수, 주류와 과자, 간식 등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세 곳밖에 없다. 로타 주민의 광장 역할을 하는 공원 주변에는 산 프란시스코 데 보르하 성당과 묘지 등이 있다.

거리는 미국보다는 스페인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중미의 작은 시골과도 닮은 듯싶다. 16세기 초부터 400년 가까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탓이다. 오래되고 빛이 바랜 건물들 사이를 거닐면 가슴 한편이 푸근해진다. 거리의 아이도, 자동차의 운전자도 낯선 이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는다. 순박하고 친절한 심성이 표정과 몸짓에 배어 있다.

사실 여행자는 식사를 하거나 주전부리를 살 때를 빼면 송송 빌리지에 갈 일이 없다. 대부분의 시간은 숙소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데 리조트나 호텔에서도 특별히 할 일은 없다. 느지막하게 일어나 아침을 먹고 일정을 수립하면 된다. 도쿄엔에서 도시락을 사 들고 해변에서 늘어지게 쉬거나 나무가 무성한 우림 속에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로타에서도 한 번쯤 섬을 도는 관광을 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압도적인 볼거리는 없지만, 바다와 바람, 세월이 빚어낸 절경이 처처에 있다. 공항의 렌터카 영업소에서 지도를 받아 펴 보면 풍경이 수려한 지점이 표시돼 있다. 섬의 면적이 85㎢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친 것과 비슷해서 한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둘레는 약 60㎞이고, 모양은 기울어진 타원형이다.

로타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은 아스 만모스(As Manmos)와 포니야 포인트(Poniya Point)다. 두 명승지는 섬의 양 극단에 있지만, 경관은 닮은꼴이다.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절벽이 형성돼 있고, 발아래로 끊임없이 높은 파도가 친다.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올 때마다 새하얀 포말이 솟구치며 장쾌한 장면이 연출된다. 아스 만모스에서는 큰 물고기가 떼를 지어 유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섬의 동남쪽에는 로타의 원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버드 생추어리'(Bird Sanctuary)가 위치한다. '조류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이곳은 로타 주변에 서식하는 새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 몰려드는 밀림이다. 가마우지, 제비갈매기, 열대새, 군함새 등이 해 질 무렵 하나둘 찾아왔다가 낮이 되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저녁이나 새벽에 가면 벼랑 위에 마련된 산책로에서 숲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장엄한 해돋이와 해넘이를 바라보기에도 좋은 곳이다.

북위 14도인 로타는 적도와 가까운 탓인지 수평선이 약간 휘어져 보인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에는 더욱 이질적이고 몽환적인 풍광이 눈길을 앗아간다. 일순간 적색부터 청색까지 이어지는 빛의 스펙트럼이 상공에 펼쳐진다. 하늘 전체가 무지개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아이 러브 사이판'은 공식 브랜드 슬로건은 아니지만, 기라판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문구가 들어간 기념품도 판매된다.

# 사이판
## 남국에서 만끽하는 여유로운 나날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섬인 사이판은 전형적인 휴양지다. 섬의 서쪽 해안과 나란히 나 있는 비치 로드(Beach Road)를 따라 숙박 시설과 대형 상점,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해변도 사방에 숨어 있다. 로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느긋하고 열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사이판과 비슷한 위도에는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이 있다. 한국인이 겨울철 한파를 피해 여행을 떠날 때 많이 택하는 동남아시아의 도시들이다. 위도가 비스름하다면 기후나 자연도 흡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행지로서 보자면 서로가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다.

일국의 수도인 방콕이나 마닐라에 비하면 사이판은 덜 문명적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이 많지 않고, 세련되고 화려한 놀이 시설도 없다. 115㎢ 넓이의 섬에 5만 명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섬일 따름이다. 동일선상에 놓고 견주기에는 장소의 규모나 특성이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사이판이 동남아시아의 여행지에 비해 절대우위를 갖는 부문이 있다. 우선 안전이다. 미국령인 사이판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 시위나 폭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소득수준도 높다. 한밤중에 자유롭게 거리를 다녀도 될 만큼 치안도 나쁘지 않다. 인구밀도가 낮고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초행자도 쉽게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비행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도 강점이다. 마닐라나 세부를 제외하면 거개의 동남아 도시는 사이판에 갈 때보다 오래 항공기를 타야 도착한다.

사이판의 장점을 종합해 보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합한 여행지라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사이판을 찾는 한국인 중에는 가족 단위가 많다. 마리아나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국인 입국자 중 배우자, 아이를 동반한 사람의 비율은 53%, 45%였다. 부모를 모시고 온 여행자도 10%가 넘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비교해 봐도 한국인은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가족 여행객이 주를 이루다 보니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사이판 패키지여행은 리조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쇼핑이나 선택 관광의 횟수도 적다. 패키지여행은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여정이 천편일률적이다. 약간은 색다른 체험 활동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가라판은 사이판 여행에서 지나칠 수 없는 쇼핑 장소다. 쇼핑백을 손에 든 행인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음식을 파는 식당도 즐비하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바와 마사지 전문점도 많다.

# Saipan

## 낮에는 해변, 밤에는 가라판

사이판은 산호초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진 섬이다. 중앙부에 해발 473m의 타포차우(Tapochau) 산이 버티고 있고 서쪽 해안에는 초호(礁湖, Lagoon)가 넓게 발달돼 있다. 초호는 산호초로 인해 섬 둘레에 바닷물이 얕게 괸 곳을 뜻한다. 녹색이 감도는 연한 푸른빛을 띤 바다가 바로 초호다.

무인도인 마나가하(Managaha) 섬은 초호의 한가운데에 있다. 에메랄드빛의 투명한 바닷물, 고운 모래가 깔린 해변 때문에 최고의 물놀이 장소로 꼽힌다. 선베드와 파라솔을 빌릴 수 있고, 스노클링, 패러세일링, 바나나 보트, 스쿠버다이빙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좋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식당에서는 뷔페식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마나가하 섬에서 2.5㎞ 거리에 있는 마이크로(Micro) 해변은 사이판의 해변 중 가장 유명하다. 사이판 최대 번화가인 가라판(Garapan)에 위치해 언제나 사람이 많다. 특히 낙조가 아름다워서 해가 저물 즈음이면 산책을 하는 연인이 적지 않다. 마이크로 해변에서 비치 로드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탱크(Tank) 해변과 킬릴리(Kilili) 해변이 있다. 탱크 해변에는 명칭처럼 일본군이 썼던 탱크가 물에 잠겨 있고, 킬릴리 해변은 주민들이 야간에 바비큐 파티를 벌이기 위해 향하는 곳이다.

사이판 동쪽과 남쪽 해안에는 보다 고요한 해변들이 자리한다. 대표적인 장소가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다다르는 제프리스(Jeffrey's) 해변이다. 찾는 이가 드문데다 특이하고 커다란 바윗덩어리가 여기저기 있어서 묘한 기분이 든다. 남쪽의 오브잔(Obyan) 해변에서는 별 모양으로 깎인 산호를 발견할 수 있다.

햇볕이 뜨거운 낮에 해변에서 해수욕과 휴식을 했다면, 어스름이 깔린 뒤에는 가라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아메리칸 메모리얼(American Memorial) 공원에서 면세점인 T 갤러리아(Galleria) 사이의 약 1㎞ 길이의 대로에 여행자의 밤을 책임질 시설이 집중돼 있다.

쇼핑은 T 갤러리아를 중심으로 도보로 5분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다. 티셔츠, 열쇠고리, 비누 같은 각종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이 러브 사이판'(I Love Saipan), 사이판에서 생산된 수공예품을 파는 '메이드 인 사이판'(Made in Saipan)이 T 갤러리아와 붙어 있다. 또 식자재와 생활용품이 품목별로 정리돼 있는 대형 슈퍼마켓인 '조텐'(Joeten)도 지척이다.

레스토랑의 종류도 다양하다. 미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비롯해 한식당과 일식당 등이 포진해 있다. 노점에서는 주로 원주민인 차모로족의 음식을 내놓는다. 코코넛 가루, 설탕에 코코넛 우유를 부어 반죽한 뒤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운 아피기기(Apigigi)가 별미다.

# Saipan

## 2시간 만에 둘러보는 북부 경승지

사이판은 안면도와 면적이 거의 같다. 남북 길이는 21㎞, 동서 길이는 9㎞다. 대규모 리조트는 섬 남부에 많고, 가라판은 서부 해안의 중간쯤에 있다. 경치가 미려한 장소들은 북쪽에 몰려 있다. 하루 정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여행 상품에 참가해 돌아볼 수 있다. 가라판에서 북부 지역은 자동차로 20분이면 닿는다.

작은 동굴을 의미하는 그로토(Grotto)는 로타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이다. 해안의 연약한 지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해식동굴로 사이판은 물론 북마리아나 제도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평가받는다. 주차장에서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데, 경사가 가팔라서 자못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로토의 바닷물은 고여 있는 듯하지만, 좁은 틈으로 계속 들고 난다. 수심이 깊어서인지 빛깔은 초호의 물과 달리 검푸르고, 햇빛이 비치는 부분만 코발트빛으로 반짝거린다. 구명조끼를 입고 수경을 쓴 사람들은 부유하며 심연의 세계에 몰입한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수중에 있는 터널까지 탐험을 할 수 있다.

사이판의 명소는 거개가 바닷가에 있다. 그로토(왼쪽 페이지), 버드 아일랜드(위 사진), 만세 절벽은 모두 경이로운 해안 지형이다. 세 곳을 이동하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사이판에서는 다채로운 스포츠 축제가 개최된다. 3월에는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 6월에는 스노클링, 7월에는 낚시, 12월에는 사이클링 대회가 열린다. 외국인도 참가 신청을 한 뒤 자웅을 겨룰 수 있다.

그로토가 위치한 매독(Madog) 곶에는 로타의 버드 생추어리처럼 새들의 둥지가 있는 '버드 아일랜드'(Bird Island)가 있다. 초승달처럼 부드럽게 굽은 해안의 가운데에 섬이 떠 있다. 석회암으로 이뤄진 이 섬은 군데군데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구멍이 나 있고, 일부분만 식물로 덮여 있다. 원주민들은 거북을 닮았다는 연유로 '거북 바위'라고 부른다. 그로토의 반대편에 전망대가 있는데, 굽어보면 섬 주위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시원스럽다.

사이판의 북단인 만세 절벽과 자살 절벽은 약 70년 전 미국에 패배한 일본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만세 절벽에서는 군인과 일반인 1천여 명이 80m 아래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고, 뒤편의 자살 절벽에서도 장교들이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자살 절벽보다는 바다와 면한 만세 절벽의 풍치가 더 좋다. 만세 절벽은 로타의 아스 만모스와 유사한 지형인데, 훨씬 인상적이고 웅장하다.

# 리조트, 당신의 여행을 결정할 선택

사이판은 호텔의 객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찍 예약해야 원하는 곳을 잡을 수 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나 가족 여행객이 묵을 만한 로타와 사이판의 리조트를 소개한다.

## Rota Resort

**Tip**

**Golf Course**

로타 리조트에는 섬에 하나뿐인 18홀 골프장이 있다. 필리핀해와 면한 구릉지에 있어서 라운딩을 하는 동안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다. 미국인 스콧 피세트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테마로 일부 코스를 디자인했다. 이용객이 많지 않아 비교적 한적하며, 주변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전반 9홀보다는 후반 9홀의 코스가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길이는 7천93야드(파 72)이다. 투숙객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다. 클럽과 신발을 25달러, 10달러에 빌려준다.
**문의** 1-670-532-1156

### 로타 리조트, 넓고 안락한 로타 최고의 숙소

호텔이 많지 않은 로타에서 가장 돋보이는 리조트다. 객실은 56개가 있으며 조망에 따라 오션 뷰, 가든 뷰, 마운틴 뷰로 나뉜다. 모든 방이 스위트룸 형태로 설계된 점이 특색이다. 거실에는 탁자와 의자, 소파, 책상이 있고 침실도 2개씩 있다. 침실에는 각각 더블베드 1개와 싱글베드 2개가 놓여 있다. 공간이 넉넉해서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 여행객이 머물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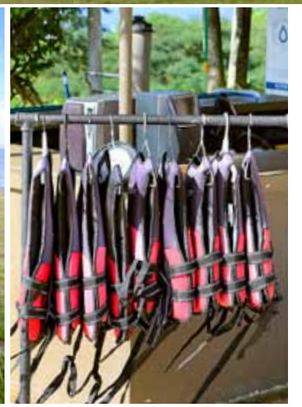
리조트 내에는 퍼시피카(Pacifica)와 티키티키(Tiki Tiki) 레스토랑이 있다. 퍼시피카는 차모로족의 전통 음식과 샌드위치, 스테이크, 파스타 등 서양 요리를 선보인다. 티키티키에서는 석양을 보며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두 곳 모두 로타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와 채소를 사용한다. 아침에는 다양한 세트 메뉴를 판매한다. 이외에도 수영장과 스파 시설이 갖춰져 있다.

**Tip**

**Golf Course**

코럴 오션 골프 리조트의 골프 코스는 7번 홀인 '샤크 베이'(Shark Bay)와 14번 홀인 '코럴 포인트'(Coral Point)가 백미다. 두 홀은 티잉 그라운드와 홀 사이에 바다가 있다. 클럽 선택이나 방향 조절을 잘못하면 공이 바닷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6번 홀과 8번 홀, 9번 홀에서도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다. 이 골프장의 설계자는 1980년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던 래리 넬슨이다. 그는 사이판 남서부의 지형을 살리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라운딩을 하다 보면 제2차 세계대전때 군인들이 팠던 동굴과 벙커가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페어웨이가 넓어서 안정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길이는 7천156야드(파 72)이다.
**문의** www.cogresort.com, 1-670-234-7000

## Coral Ocean Golf Resort



코럴 오션 골프 리조트는 골퍼에게 최적화된 곳이다. 사이판의 광활한 바다를 보며 운동을 할 수 있다. 바다 너머로는 티니안 섬이 보인다. 리조트에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레스토랑, 골프 용품점도 있다.

### 코럴 오션 골프 리조트, 바다를 향해 샷을 날리다

1988년 '코럴 오션 포인트 리조트'로 개장해 2012년 이랜드 그룹이 인수한 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3년 12월 일부 객실과 골프장을 정비한 뒤 문을 열었고, 독채 형태의 숙소는 오는 1월에 보수 작업이 끝난다. 자동차로 사이판 공항까지 10분, 가라판까지는 20분 소요된다.

객실은 오션 슈피리어와 오션 디럭스가 36개씩 있으며, 발코니가 딸려 있다. 전망은 2층에 있는 오션 디럭스 객실이 조금 더 낫다.

야외 수영장 옆에는 더블 이글(Double Eagle) 레스토랑과 차모리타(Chamorrita) 카페가 자리한다. 조식은 뷔페로 제공되고, 점심과 저녁에는 단품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국물이 얼큰하고 개운한 국수도 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는 레스토랑 메뉴를 룸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로비에는 골프 용품을 파는 상점이 들어서 있으며, 테니스장도 있다.

한편 이랜드 그룹은 2012년 이후 사이판에서 코럴 오션 골프 리조트 외에도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PIC) 사이판, 팜스 리조트 등을 매입했다. 팜스 리조트는 내부 수리가 진행 중이다. Ⓨ

# INFORMATION

북마리아나 제도는 한국에서 약 3천㎞ 거리에 있다. 사이판, 티니안, 로타를 제외한 섬은 대부분 무인도다. 문화나 생활 면에서는 스페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편이다.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많고, 성당은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공용어는 영어와 차모로어, 캐롤리니안어이다.

## 기본 정보

### 가는 법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과 부산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8시 10분(일요일에는 오후 7시 40분)에 출발한다. 돌아오는 항공기는 오전 2시 40분(월요일은 오전 2시 10분)과 오후 3시 20분에 이륙한다. 부산에서는 주 2회 운항된다. 김해공항에서 수·토요일 오후 9시에 떠나며, 사이판에서는 목·일요일 오전 3시 10분에 비행기가 뜬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도 인천-사이판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 이륙 시각은 인천이 오전 10시 10분, 사이판이 오후 4시 30분이다. 비행시간은 인천 기준으로 갈 때 4시간 20분, 올 때 4시간 50분이다.

### 입국, 기후, 복장

미국령이지만 ESTA(전자 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4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ESTA 과정을 거치면 90일간 머물 수 있다. 날씨는 연중 무덥다. 연평균 기온은 27도이며,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로 열대성 폭우가 자주 내린다. 12월부터 이듬해 5~6월까지는 건기에 해당된다. 외부에서는 대개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 다만 일부 상점과 식당에서는 냉방을 강하게 한다. 이에 대비해 얇은 카디건을 가져가면 좋다.

### 환율, 시차, 전압, 준비물

미국 달러를 사용한다. 12월 23일 기준으로 1달러는 약 1천100원이다. 지난여름 1천7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오르는 추세에 있다. 시차는 1시간 빠르다. 서울이 정오일 때 사이판은 오후 1시다. 전압은 120V이며, 11자 플러그가 있어야 한다. 햇볕이 강한 만큼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로타의 버드 생추어리에서는 망원경이 유용하다. 멀리 보이는 새들의 날갯짓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여행 정보

마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02-777-3252)에서 여행 책자와 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MyMarianas.co.kr)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섬 내 교통편

사이판과 로타는 작은 섬이어서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렌터카로 돌아본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있어도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허츠, 에이비스, 알라모 렌터카 등 세계적인 업체와 현지 업체가 모두 갖춰져 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고 가라판에 있는 렌터카 영업점을 찾아가 차를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은 보험을 포함해 하루에 50~150달러이다. 사이판에서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이 2.5달러이며, 약 400m마다 0.75달러씩 추가된다. 또 가라판 시내에서는 T 갤러리아의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반면 로타에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다.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리조트에 문의해 직원이 모는 차량으로 둘러봐야 한다. 로타 리조트의 경우 송송 빌리지까지 왕복 요금이 8달러다.

### 사이판과 로타 이동하기

유나이티드항공이 주 2회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다. 사이판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에 이륙하고, 로타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5분에 출발한다. 비행시간은 약 35분이다. 유나이티드항공 웹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스타 마리아나(Star Marianas) 항공도 비행기를 띄운다. 이륙 시간은 다소 유동적인 편이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인원이 4~6명이라면 전세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로타의 명소

### 천 그루 야자수

송송 빌리지와 웨딩케이크 산 사이에 위치한 해변에 있다. 일본어로 '센본야시'(千本椰子)라고도 불린다. 바닷가 안쪽에 기다란 야자나무가 무성하다. 야자수는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 정부가 심었다고 전해진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다.

### 라테 스톤(Latte Stone) 채석장

고대 차모로족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한 라테 스톤을 만들던 장소로 추정된다. 섬 동쪽의 넓은 터에 다듬어진 반구형 석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규모가 상당한 돌을 운반한 과정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아스 만모스, 버드 생추어리 등과 함께 돌아보면 좋다.

사진 / 마리아나관광청 제공

### 스위밍 홀(Swimming Hole)

암초에 둘러싸인 천연 수영장이다. 마치 온천처럼 바닥에서 물이 솟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수심이 얕은 곳은 하늘색, 깊은 곳은 진한 파란색을 띤다. 로타 리조트에 투숙하면 길이 6.1㎞의 숲길을 트레킹하고 스위밍 홀에서 땀을 식힐 수 있다.

## 사이판의 명소

### 한국인 위령탑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사이판에 끌려와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1981년 건립됐다. 위령탑 꼭대기에 한반도 쪽을 향한 독수리 조각상이 있다. 공원 곳곳에 위령탑을 다녀간 단체가 남긴 비석이 있다. 인근에는 일본군의 최후 사령부가 자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일본군이 미군에 저항한 격전지였다.

### 스트리트 마켓(Street Market)

매주 목요일 저녁 가라판 인근 공터에서 열리는 시장이다. 보통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이 선다. 사이판의 유명 레스토랑이 운영하는 노점이 들어서 꼬치와 딤섬, 오징어 구이, 과일 음료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한다. 여러 노점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요리를 구입해 바닷가에서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진 / 마리아나관광청 제공

## Resort in Garapan

###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

마이크로 해변을 전용 해변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변은 물론 리조트 객실에서도 황홀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다채로운 열대 식물에 둘러싸인 야외 수영장이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방,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요가실, 스파 등이 구비돼 있다. 일본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내는 레스토랑도 있다. 객실은 317개가 있으며, 킹 룸, 더블 룸, 클럽 더블, 클럽 뷰 킹, 클럽 뷰 더블 등으로 나뉜다. 한글 웹사이트(http://saipan.regency.hyatt.kr)에서 객실 예약을 할 수 있다.

## Shopping & Dining in Garapan

### T 갤러리아, 하드록 카페(Hard Rock Cafe)

면세점 T 갤러리아는 가라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명품, 화장품, 보석과 시계, 주류와 담배, 음식, 기념품 등을 취급한다. 매장 안에 환전소가 있고, 유모차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곳에서 구입한 상품은 T 갤러리아 서울 사무소를 통해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커피와 차를 마시기 위해 들러볼 만하다. 세계에 15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체인 레스토랑인 하드록 카페는 T 갤러리아 건물 안에 있다. 중앙에 커다란 스포츠카가 있고 주변으로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메뉴는 스테이크, 햄버거, 샌드위치, 파스타 등이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라이브 공연도 진행된다. T 갤러리아와 하드록 카페의 운영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다.